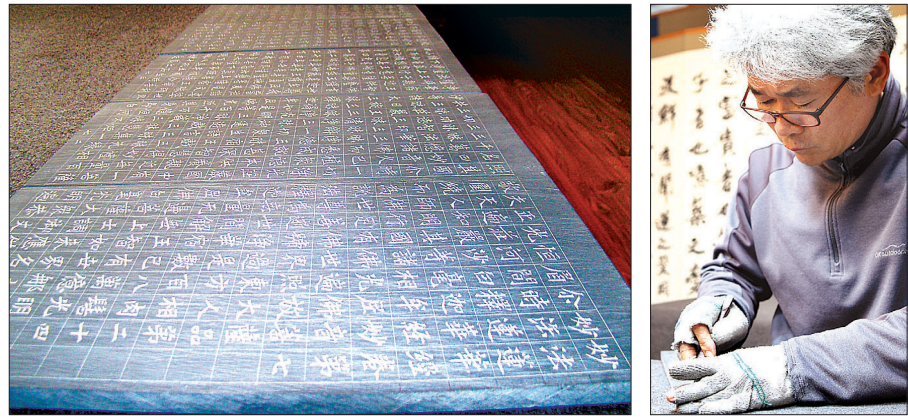


법화경 7만자 돌 위에서 꽃 피다

서예가 김정호 씨 법화석경 전시

《법화경》 7만자가 돌 위에서 피워 올랐다. 서예가 김정호 씨가 법화석경 513만 장을 완성 5월 11일~31일 나무갤러리에서 전시를 연다. ‘돌 위에 핀 법의 꽃’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전시는 98년도부터 사경을 시작해 석판 위로 옮긴 작가의 불심을 한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서예가 김정호 씨(사진 오른쪽)가 법화석경 513만 장을 완성 5월 31일까지 나무갤러리에서 전시를 연다.

5월 11일~31일 나무갤러리서

화엄석경 복원 발원... 이미 시작

되는 과정이죠. 물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저를 평생 돌봐준 아내도 어느날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어요. 하지만 신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작업을 했어요. 그렇게 10여년 사경을 하고 돌작업으로 들어갈 즈음 후원자가 생겨 들을 구할 수 있었죠. 이 모두가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해요.”

그를 법화석경의 길로 이끈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스승 여초 김응현 선생이다. 《천자문》 사경을 20여회 한 것을 스승에게 보여주니 그때부터 법화경 사경을 해보라고 권했다고. “1989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

선의 인연으로 여초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선생님께 천자문 작업을 보여주셨더니 작은 글씨에 능한 것을 알아보고 사경을 권하셨죠. 그때부터 시작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화경》 작업을 끝낸 김 씨는 앞으로 《화엄경》 작업에 도전할 예정이다. 화엄경 약간계를 이미 샘플 작업해본 그에게 이를 바탕으로 화엄석경을 복원하는 것이 그의 일생일대의 또다른 과업이 된 것이다. “화엄석경을 완성하면 가로 25m 세로 25m 높이 4m 공간에 들어 갈 정도의 방대한 분량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외출도 삼가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지만 일생일대의 숙명으로 알고 이 작업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010)9163-8448

정혜숙 기자 bhws@hyunbul.com

삼춘의 풍광이 사계절을 독점하니

동백과 다산의 열이 스민 고찰

“전라도 강진현(康津縣) 남쪽에 산이 있어 우뚝차게 일어나 맑게 뻗어나고 우뚝하여 바다 기슭에 접하여 그쳤으니, 이름은 만덕산(萬德山)이요, 산의 남쪽에 사찰이 있어 통창하고 광활하여 한 바다를 굽어보니, 이름은 백련사(白蓮社)다. 세상에 전하는 바에 의하면 신라시대에 창설되고 고려 원묘(圓妙)국사가 중수하였으며, 11대를 전하여 무의(無畏)국사에 이르도록 항상 법화도량(法華道場)이 되어 동방의 명찰이라 일컬었다.”

고려말에서 조선 초기를 살다간 윤희(尹淮 1380~1436)가 쓴 ‘만덕산백련사중창기(萬德山白蓮社重創記)’의 도입부다. 서거정 등이 편찬한 <동문선> 제81권에 실려 있다. 이 중창기가 말해주는 것처럼 강진 백련사(白蓮寺)는 신라 고찰이고 고려의 원묘국사가 백련결사를 맺어 수행을 하던 곳이다. 그 수행전통에 의해 이름에도 절(寺)이 아닌 결사의 사(社)를 쓴 것이다. 이후 산 이름을 따 만덕사(萬德寺)라고 부르다가 다시 백련사(白蓮寺)로 고쳐 불러 오늘에 이른다.

역사적으로 백련사를 상징하는 것이 ‘백련결사’의 수행전통이라면 일반인들에게는 백련사의 동백 숲과 다산초당 가는 숲길 등이 백련사를 상징하는 아이콘이다. 절의 만경루에서 멀리 내려다보이는 강진만 구강포 앞바다의 풍경도 인상적이다.

강당의 용도로 지어져 지금은 템플스테이 교육장으로 쓰이는 만경루와 대웅보전의 현판은 원교 이광사(貞嶠 李匡師 1705~1777)의 글씨이고 대웅보전 안 좌측 벽에 걸려 있는 ‘만덕산 백련사’ 현판은 신라 명필 김생(金生 711~?)의 글씨를 집자한 것이다 한다.

결사수행의 전통이 전해지고 동백꽃 숲길에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1762~1836)의 체취가 어려 있는 백련사는 소중한 문화공간이 아닐 수 없다. 그만큼 절에 깃든 선비들의 시도 맑고 곱다.

화발염풍삭설중(花發嚴風朔雪中) 심홍만수사문동(深紅萬樹寺門東) 사시독점삼춘색(四時獨占三春色) 조물어금각달공(造物於今却未公)

꽃이 눈 쌓였던 땅 찬바람 끝에 피어나니 절 동쪽 산 온통 진홍빛이로다. 삼춘의 풍광이 사계절을 독점하니 조물주도 여기엔 공정치 못한가!

<신증동국여지승람>권37에 소개되고 있는 성임(成任 1421~1484)의 시다. 제목은 ‘백련사시(白蓮社詩)’. 성임은 세종 20년에 과거에 합격하고 공직생활을 시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20 강진 백련사 ①



대웅보전 내부. 왼쪽벽에 걸린 현판 여섯글자가 신라명필 김생의 글씨를 집자한 것이다.

작했다. <국조보감> <경국대전> 등의 편찬에 참여한 상당히 학식이 높은 선비였다. 문장도 빼어나고 글씨도 잘 써서 경북 공의 전각 편액과 왕실의 사경 등에 솜씨를 발휘했다.

백련사를 묘사한 그의 시는 매우 단호하다. 그의 시심이 백련사 동백의 붉은 빛에 얼마나 매료되었는지 ‘삼춘의 풍광이 사계절을 독점한다’는 표현을 했을까? 그도 조물주도 못될 수 없지 않을까 생각되고 단정한다. 백련사의 동백이 주는 인상을 이렇게 단호하게 표현한 시는 드물다.

고성담석조(孤城淡夕照) 운해벽뇌람(雲海碧靄) 옥타봉천만(玉朶峯千萬) 하의객이삼(荷衣客二三) 련편방백사(聯翩訪白社) 일야중현담(一夜縱玄談) 경희선관정(更喜禪關靜) 계류동설음(溪流凍舌 聒)

외로운 성에 저녁놀 얇게 깔리고 구름바다 쪽빛으로 푸르네. 옥이 솟은 봉우리 천 길인데 하의입은 나그네 두 세 사람. 나란히 말을 타고 백련사 찾아 하룻밤 마음껏 현담을 나누네. 더욱 좋을시고! 선관이 고요하다. 시내조차 얼어붙어 병어리 되었으니.

도량 감삼 고요한 선의 경지 시대의 풍운아 백호(白湖) 임제(林梯 1549~1587)가 문과에 급제해 제주도로 부친을 뵈러 가는 길에 백련사에 들려 지은 시라고 한다. 제목은 ‘백련사차자관운(白蓮社次子寬韻)’이며 <백호집> 1권에 실려 있다. 성격이 활발하고 문장에 걸림이 없는 임제답게 백련사를 그윽한 풍경 속 깊은

선정에 잠긴 도량으로 그려내고 있다. 향연에 나오는 하의(荷衣)는 연꽃잎을 말려 만든 옷이라는 뜻이지만 속세를 떠나 도를 닦는 사람을 상징하는 말이다. 수행도량을 찾아 온 현사(賢士)를 그렇게 표현했는데 결국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다.

말을 타고 그윽한 수행도량에 찾아와 하룻밤 내내 법담을 나누니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런데 시내조차 얼어붙었다는 표현으로 만물이 침묵 속에 잠겨 있는 고요, 열반적정의 경지가 열려 있음을 말하고 있다. 과연 임제다운 어법이 아닐 수 없다.

차수송간일납요(叉手松間一納邀) 금릉고사정소승(金陵古寺靜蕭蕭) 법의수영회청도(佛衣樹影迴淸島) 산포루광범만조(山樛樓光汎晚潮) 석로공정상취적(石老空庭常翠滴) 지고위중풍용요(地高危磴欲風搖) 천년육자김생필(千年六字金生筆) 유작은포만벽설(猶作銀鉤琥珀雪)

소나무 사이로 스님이 합장하며 맞으니 금릉(강진)의 옛 절 쓸쓸하여 고요하다. 뭇은 나무 그림자 사이로 비쳐 섬을 돌아가고 산은 누각의 빛을 안아 늦은 조수에 떴네. 빈 뜰 늙은 바위엔 비취빛 향상 적시고 지경이 높아 가파른 돌계단 바람에도 흔들리겠네. 천년을 전해 온 김생의 글자 여섯 아직도 은구인양 푸른 하늘을 당긴다.

이 시의 제목은 ‘산포루광(山樛樓光)’인데 다산 정약용이 편찬한 <만덕사지>에 실려 있다. 시를 지은 사람은 정재원(鄭載遠 1730~?)으로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다산 정약용의 아버지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재산과 권력에 마음을 두지 않았고 학문에 힘썼다.

동서양 어울림 무대... 아기부처 탄생 ‘봉축’

부처님오신날 KBS 방영 ‘불교음악페스티벌’ 눈길

불교유일의 오케스트라 니르바나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행복바라미와 함께하는 ‘불교음악페스티벌’이 부처님오신날인 6일 KBS1에서 방영됐다. 동서양 음악이 어우러진 2시간의 공연은 환희심이 넘쳐 흥했고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기기에 손색이 없었다.



대중들의 가장 큰 호응을 받은 합합&팝핀과 오케스트라 ‘YO! 난다’ 공연.

국악·힙합과 만난 오케스트라

판소리·팝핀, 불교음악 방향 제시

위해 첫 대목인 ‘강생’ 부분을 작곡가 김대성 씨가 편곡, 오케스트라와 판소리가 만나 8분 가량의 ‘아기부처 강생’으로 재탄생시켰다.

대중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끈 공연은 힙합&팝핀과 오케스트라 ‘YO! 난다’. 20여명의 서울종합예술학교 학생이 출연 난다의 수행과정을 춤으로 풀어 신나는 무대를 펼쳤다. 바리톤과 오케스트라의 융합으로 새로움을 더한 이 공연은 ‘신선하다’ ‘세

롭다’는 평가를 받으며 대중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한 봉은사 상도선원 능인선원 등 13개 연합합창단과 중앙대 학생 등 330명이 장엄한 무대를 펼쳤다.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를 연주한 정은은 국회 불자모임인 정각회 정병국 위원장이 이들로 이번 무대에 올라 주목을 받았다.

불교음악페스티벌은 총 제작비 1억 5천만원의 대형무대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찬불 음악이 설 자리가 너무나 좁은 것은 사실이다. 이번 공연을 통해 불자들이 불교 음악에 관심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정혜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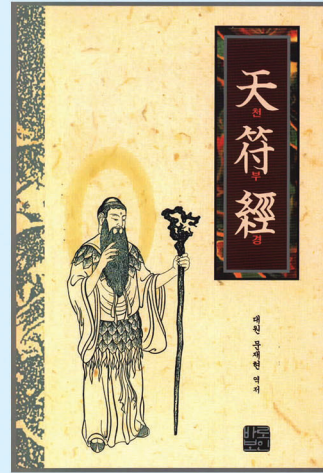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5번째 저서 출간!

신간!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불공예식법이란, 우러러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하는 예법 등을 총칭합니다. 이러한 귀중한 예법들이 흠족한 우리말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종락) 50여 년 전 대구 보현사 시절부터 준비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오늘에야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은 현재 총 65권의 저서를 출간하였으며 포천 서울 부산 광주에서 매월 선사님의 법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바로보인 천부경

1986년 5월 15일, 당시 단군선양회를 이끄시던 안호상 박사님과 김경수 참의원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즉석에서 현토하고 설했던 것을 1997년이 되어서야 출간하였다.

이 책에는 삼부경인 천부경, 교화경, 치화경이 함께 실려 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해안의 통찰력으로 밝힌 우리 조상만의 사상, 인류를 선구적으로 이끈 자랑스러운 문화적 역사, 삼부경!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 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대원 문재현 선사가 일체중지를 통달한 명안 증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삼매(三昧)의 채로 걸러진, 뼈를 깎는 수행의 결정체
오도송·전법계·열반송·선문답 통해 참마음 깨닫기

제불조사의 선사, 깨달음의 노래
돌계집이 애를 낳는구나

이계목 지음 | 신국판 | 무선 | 흑백 | 636쪽 | 28,000원

제1부 과거찰불과 선종 33조사의 전법계, 제2부 고승·대덕의 오도송과 수행송, 열반송을 모아 번역하고 해설했다. 제3부는 저자의 견도송(見道頌)을 비롯한 자작(自作) 선시와 선문답들로서 40여년간 참선하면서 그때그때 느끼고 깨달은 바를 노래한 책이다. 해인사 강주를 역임, 수행자들에게 선(禪)과 유식(唯識)을 지도해온 화정 이계목 노거사의 역작(力作).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우주의 주인공, 결림없는 대자유인으로 살아가라!

의지함이 없는 도인(無依道人)으로 사는 법
임제록 강설

‘선어록의 왕’으로 일컬어지는 임제록은 당나라 때의 고승 임제의현(臨濟義玄)선사의 독특한 가풍(高僧 治法)을 보여주는 여록으로서, 실천적인 선(禪)의 진수를 설파한 명저다. 임제스님은 조계종의 선맥(禪脈)이기도 하며 일본 임제종의 연원이기도 하다. 덕산스님은 선(禪)의 세계를 바로 알리고 누구나 일상 속에서 자유와 행복을 구가할 수 있도록 법어와 선문답 등을 쉽게 풀이했다.

비교과서통 02-2632-8739, buddhaphia5@daum.net